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MARCH 2024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43

청룡의 해를 맞이하는 골든클럽

찬 바람 속에서도 언뜻언뜻 풀냄새가 물어나는 걸 보니 봄도 멀지 않은 가 봅니다. 그래서 골퍼들은 3월이 되면 골프채에 쌓인 먼지들을 닦아내면서 새해의 계획들을 세워보곤 하는 것이겠지요. 올해는 청룡의 해에 걸맞게 골든클럽도 당연히 뭔가 큰 계획과 큰 다짐과 큰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원들 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기존 Project들을 다지면서, 골든클럽이 더 알차고 사람이 넘치도록 만들어 가는 것 또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첫째로, 회원들 간에 **Skinship**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담 없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즐겁게 놀거나, 뭔가 같이 일하는 자리들을 만들어 보자. 외롭지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도록 지역적으로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회원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들을 취합해 보겠습니다. 가칭 “brothers”라는 5-8명 단위의 모임들을 만들어 한 달에 한 두번씩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수다, 산책, 당구, 독서, 여행, 공동 관심사 등, 취미활동을 공유하면 서로가 친밀한 동문, 가까운 이웃, 믿을 수 있는 친척, 좋은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둘째로는 모든 회원들이 골든클럽에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골든클럽이 현재 진행



하고 있는 Project로는 Golf Outing(8회), 회보발행(12회), 피크닉, 신년교례회, Myrtle Beach Golf Trip, Hiking, 당구, 바둑, Directory 발간, 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모든 회원들이 어느 한 Project에 속하도록 하고, 일들을 세분화시키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각자 일년에 12시간 전후의 봉사를 하면서 같이 협조해 나간다면 회원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참여 의식도 높아지고, 조직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들의, 회원들을 위한, 회원들에 의한 골든클럽”

무척이나 귀에 익은 글귀지만, 따뜻하고 끈끈하고, 건강한 골든클럽을 만들어 가려는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글귀 같습니다.

심리적(모든 회원이 연차적으로 모두 참여), 경제적, 시간적(연간 12시간 전후) 부담은 시각에 따라서는 부담이 전혀 없다

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여겨지는 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상당히 이로움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는 회원들의 참여와 조언을 바탕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작은 변화부터 순차적으로 실천에 옮겨, 소기의 성과가 얻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운영위원회)

2024년 신년교례회

골든클럽의 행사가 골프 / 야유회 / 하이킹 등 야외 행사가 위주가 되다 보니 겨울에는 다소 적조했습니다. 봄을 맞이 하면서 회원들 안부를 묻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신년교례를 아래와 같이 열게 되었으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4-5: Cocktail Hour
 5-5:45: 총회와 보고
 5:45-6:45 Dinner
 6:45-9: Entertainment

장소: Double Tree Hotel Grand Ballroom,
 Fort Lee, NJ

회비: 1인당 \$120

특별출연:

Sam Chung: Cello
 신송은: 가야금
 김기웅: 테너
 정지은: 피아노



2023년 4월 1일 Tenafly에 위치한 Korea Community Center에서 열렸던 신년교례회



손대홍 회원의 재치있고 품격있는 사회로 진행된 3부순서

3월 산행 안내



움츠러들었던 겨울도 지나고, 새 봄이 시작되면서 병리학을 전문하신 권정덕 회원께서 골든클럽 현실에 부합하는 무리하지 않은 하이킹을 던지시 내비치셨습니다. 80대 선배님들도 무리하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는 봄 산행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회원과 가족의 참가를 바랍니다.

행선지는 Seven Lake, Harriman State Park 이며, 산행거리 4-5 마일 정도로, 산책, 피크닉과 하이킹을 아우르는 형식이 되겠으며,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 수준에 따라 정기 행사로 검토하겠습니다.

일시: 3월 21일(목) 9시

집결장소: PIP exit 4-5 중간 Commuter Parking Lot

준비물: 바닥이 딱딱한 등산화, 하이킹 폴, 마실 물과 간략한 도시락 (하산후 따끈한 오텡라면 또는 맛있는 Pizza 집으로 안내 예정)

2024년 첫번째 골프대회

아직 강한 추위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다소 따뜻해질 4월에 첫번째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려 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시: 2024년 4월 25일 (목) 12:00

장소: Sunset Valley Golf Club, NJ

회비: \$120

등록: 김병순 (703)407-4928 kbs8717@gmail.com

Tee off: 인원이 많아져서 Shotgun start를 희망합니다

원고모집

뉴스레터에 게재할 회원들의 원고와 사진을 상시 모집합니다. 여행후기, 가족 특별행사, 수필 등 자유롭게 사진과 함께 제출바랍니다. 길이는 600단어 내외로 하고 사진은 원본을 보내주세요

제출: 김정필 (jaypkim@keiusa.com)



2월 10일에는 뉴욕동창회 (회장 연영재) 주최로 구정맞이 신년하례회가 있었습니다.



2월 19일에 홍종만 회장과 김정필 사무총장이 White Plains에 있는 Eric Rehab & Healthcare로 요양중인 김종올 박사님을 방문하고 위문을 드렸습니다.



이흥빈 회원님이 지난 Christmas연휴에 왔던 '막내 용희(Dr. Erich Y. Lee)네 가족과 함께한 '가족사진'



정해민 고문님 아리조나 휴가지에서 온가족이 함께한 가족사진

2024 THE UNDERWOOD ORCHESTRA CONCERT

I. SYMPHONY NO.3 OP.90 BY JOHANNES BRAHMS
 II. RIENZI OVERTURE BY RICHARD WAGNER
 III. ARIRANG MEDLEY ARR. BY JEONG KYU PARK



DIRECTOR & CONDUCTOR: DR. HEAMEE KANG KIM
 SOLOISTS: SEUL LEE (SOPRANO) & MINKI HONG (BARITONE)



Underwood Concert

2024 The Underwood Orchestra Concert에 귀빈을초대 합니다. 3월10일 (Sun. 7:00pm)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Dr. Horace Underwood 박사님의 헌신을 기억하며 Professional 57명이 연주합니다. Brass 12명도 함께 합니다.

끝나고 맛있는 reception 꼭 드시고 가세요. 참석해주시면 저희에게 영광되고 복단 연주회 될 것 같습니다.

* 티켓은 포스터에 있는 3 음악사 or 연주 당일 front door 에서 무료로 받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행 회장님을 만나고

위엄은 그대로... 강렬한 눈빛 여전히 살아있어

■ 여주영(명예회원)

어디라 없이 문득/ 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
다/ 누구라 없이 울켜/ 만나고픈 얼굴이 있
다/ 반드시 까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
명히 할 말이 있었던 것은 더욱 아니다/ 푸른
꽃밭이 자라서 가슴 속에 붉은 / 꽃들이 피어
서/ 가절히 머리 조아려/그걸 한사코/ 보여
주고 싶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 '추억'이다. 이 시가 떠오른 것은 2월1일 골든클럽 회장 홍종만, 홍예경 부부와 손대홍 편집위원과 함께 만난 이준행 전 회장님과 그의 오랜만의 대면 덕분이다. 인간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했던가! 이 말은 추억이 많이 그림고, 옛날 얘기를 많이 하면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뜻이라고 한다. 평생을 바쳐 탐 흘려 일군 가발 비즈니스의 거목으로 우뚝 섰던 이준행 회장. 그도 어느새 많아진 94세라는 고령의 나이 탓일까? 우리와 만난 내내 그 당당하고 위엄있던 모습은 잠시 접어두고 시종일관 지난날의 웃고 울고 하던 온갖 파노라마의 인생을 뒤돌아 보며 추억을 곱씹고 계셨다.

이준행 회장은 본인이 영국 유학시절 혼자 겪은 모국에 대한 향수병(Home Sick)이 제일 힘들었나 보다. 어느 날은 그 향수병을 참지 못해 점심먹고 무조건 한국쪽을 향해 무작정 걷고 또 걸었다고 한다. 아무리 걸어도 나오지 않아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털어놓으신다. 그 어려움과 아픔을 누구보다 알기에 아들의 영국 유학시절, 아들이 향수병을 앓지 않도록 중간 중간 세심한 배려로 어려움을 보살피 주었다고 하셨다.

어린 아들을 홀로 유학보내 놓고 겪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운 부모의 심정은 지금도 이 회장의 뇌리에 깊게 파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셀폰이 있어 얼마든지 카톡콜이라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그리운 아들의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보니 보고 싶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국제전화로 밖에 달랠 수 없었다. 전화 한 통화를 하기에 앞서 아침에 관할 체신부에 통화를 신청해 놓고 기다리면 오후에 연락와

서 겨우 아들과 선이 닿으면 너무 멀어서 서로 잘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기껏해야 “건혁아... “엄마아...”하고 서로 애타게 부르면서 달래는 게 고작이었다고 한다. 전화요금은 다른 집의 경우16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회장네는 매주 40만원씩 물었다고 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리움이 묻혀 있는지 알고도 남을 일이다.

역시 추억은 아름다운 것인가! 이준행 회장을 만나고 본 후감은 어떤 지난날 얘기라든가 듣고 보면 다 아름답고 감동이 담겨있었다. 역시 인간의 마지막은 남는 것은 돈이나 명예, 권력이 아니라 추억뿐이라는 말이 맞는 것도 같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추억을 많이 쌓고 가라고들 하는 것인가. 마지막 침상에서는 지나간 세월을 모두 회상하며 즐거워하기도 슬퍼하기도 하며, 후회하고 반성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나기 때문이다.

이준행 회장의 모습은 인터뷰 내내 비록 휠체어에는 의존하고 계셔도 10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 답지 않게 여전히 꼳꼳하시고 당당해 보이셨다. 비록 오래전인 10년전 모습과는 너무 상반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살아있어 보였다. 눈빛도 어릴 때 등교길 집에서 아버지의 명에 따라 방안에 걸려있는 히틀러의 초상화에 담긴 눈을 1분씩 마주치고 나서야 떠나야 했던 그때 당시 매섭게 마주치던 눈빛 탓일까? 그의 눈빛은 8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었다. 기억력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좋아 하나 하나 옛 이야기를 담아내시는 걸 보면 놀라울 정도였다. 역시 대단한 분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었다.

병원에 오래 계시다 보니 하체에 힘이 약해 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정신과 이상은 여전히 젊은이들이 배울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준행 회장은 지금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절대 포기란 없는 분이다. 지금도 매일 하체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Therapy에 전념을 기울이신다. 언젠가는 Walker에 의지해서 홀로 걸을 수 있는 꿈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들었



어도 절대 혼자 지내는 법이 없으시단다. 나 이되면 대부분 홀로 집에 지내기 쉬운데 이 회장은 결코 고독하게 지내는 것을 단연 거부한다.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그는 살아가는 힘을 얻고 자신이 결코 혼자이기에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하면서 사시는 분인 것 같다.

이준행 회장님을 만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꼳꼳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못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 그런 점은 나만은 아닐 것이다. 그는 몇 시간이 지나도 힘들다거나 피곤하다는 안색이 보이지 않는다.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오랜 시간 지내오면서 쌓은 깊은 내공의 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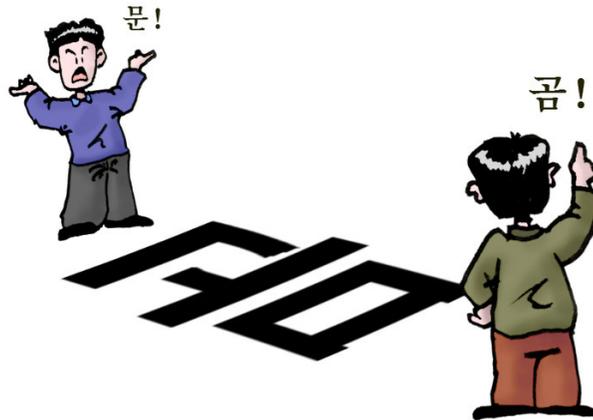
이준행 회장의 스토리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해도 질리지 않는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너무나 많고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그의 삶의 행적을 다시 한 번 돌아볼 기회를 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준행 회장은 말한다. “10명중에 한 명이라도 나의 스토리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보람이고 기쁨이다.”

한 시대를 멋지게 살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의연하게 걸어가는 그의 노후의 삶에 뜨거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후배들의 자랑스러운 멘토, 든든한 버팀목으로 계속 건강하게 남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문 앞에 나와 배웅하며 흐드는 그의 손을 보며 떠나는 내내 긴 여운이 몸을 휘감으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 손대홍(미대 79)

집안 일로 집사람과 급하게 한국에 갔다가 저만 먼저 귀국을 하고 집사람은 이런저런 일로 한국에 남아 있다 늦게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니 저와 헤어져 57일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출장이 많다 보니 집사람을 미국에 혼자 두고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오랜만에 제가 미국에 홀로 있고 집사람이 한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 출장을 오래 가게 되면 항상 집사람에게 '편한 시간 혼자 잘 보내세요'라는 말을 남기며 한국으로 떠났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별 생각없이 집사람을 한국에 두고 온 것이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혼자 지내는데 웬 집안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혼자 지내면 들어가지 않는 방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있어서 먼지가 생길 일이 없다고 대충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했는데, 혹시 해서 로봇청소기(robot vacuum)를 켜서 돌아다니게 해보니 집안에 먼지가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전체의 마루로 전용 세척제와 보호제로 닦아줘야 하고, 가구는 가구대로 먼지를 닦아내고 보호제로 마감을 해주고, 소파는 가죽전용 보호제로 닦아내려니 주중에는 일을 하느라 주말을 거의 쉬지 않고 청소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진 액자 닦는 일조차도 왜 그리 시간이 걸리는지...

둘째.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의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집사람이 오늘은 뭘 할까 걱정을 하던가, 아니면 며칠 전에 먹었던 메뉴를 다시 주면 좀 창의적인 메뉴를 요구했었는데, 한끼 한끼 찾아 먹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밥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하는 것은 왜

그리 귀찮은지요? 얼마 안되는 그릇을 dish washer를 돌릴 수도 없고 물은 왜 그렇게 옷에 튀고 또 고무장갑은 왜 그리 답답하던지요. 음식물 쓰레기는 항상 생기고 키친에 버리면 냄새가 나니 garage까지 가야 하고 리싸이클링 쓰레기는 왜 그렇게 자주 쌓이는지 제가 하루에 만드는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셋째. 빨래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니 빨래가 얼마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양이 적어도 자주 해야 하는 빨래가 있고 옷마다 세탁기의 코스가 다르니 이게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침구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길 커버를 베껴내고 다시 씌우는 일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드라이 시간도 각각이고 천의 종류에 따라 코스도 달라야 하고, 하물며 어떤 옷은 자연건조를 해야 하니 건조대에 널어야 하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어서 편한 것이 아니라 집이라는 것은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것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한국의 주부들이 해외에 가서 '한달 살아보기'를 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서의 한달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서의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한달을 떠나보고 싶은 것이 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고사성어가 이런 깨달음에도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가장 가슴에 닿았던 단어입니다. 다른 남자 분들께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적극 추천합니다. 남자가 집에 남고 아내분들께서 한달 이상 외유를 하시도록 하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해'와 '분담'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Myrtle Beach의 단상

■ 박희병 (치대63)

겨울이 오면 일조량이 줄어든 탓인지 아니면 나이를 더 먹을수록 추억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 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가장 선명하게 기억되는 추억은 여행이리라.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나날이었기 때문인가 보다. 내가 갔던 여행지와 그 여행을 함께 한 사람들, 그때 본 풍경들 필드에서의 많은 bad shot과 good shot, 나름대로 당시의 느낌들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그것이 만약 골프 여행이라면 더 할 것 같다. 꼭 멀리 갈 필요는 없다. 비단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난 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이면 된다.

Myrtle Beach는 오가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에(약간은 부담이 가지만) 위치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 중 하나다. 지난 12월의 여행은 우리 골든클럽의 최상의 모임으로 자리매김했으니 우리 모든 회원, 나아가 수고하신 회장님 이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싶다.

뒤를 돌아보는 대신 앞을 내다보며 사는 겨울 추억 만들기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자 이번 trip은 나름 길게 잡았다. 이번에는 필드의 샌드가 아니라 비치의 샌드를 마음껏 즐겨볼까 한다.

Costa Rica 골프여행을 다녀와서

■ 이종대(약대65)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중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문했었을 Costa Rica 의 여행담을 새삼스럽게 쓰면서, 신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친숙한 느낌이 먼저 들었다. 중부 아메리카에 위치한 코스타리카는 북부에는 니카라과 남부에는 파나마가 있고, 동서로는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치안이 비교적 안전하며 적도에서 10도 정도 북쪽에 위치하는 한국의 반 정도 크기의 나라이다. GNP 가 1만 3천불 정도로 관광수입이 30%를 차지하며 관광객의 85%가 미국인이다.



평소에 우리 약대동문은 네,다섯가정이 부부동반으로 티타임 잡기 좋은 9홀 타운 골프장에서 주로 운동삼아 걸으면서, 보통 일주일에 한 두번 라운딩을 하며 심신을 단련한다. 항상 18홀 Full Course를 돌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던 차에 마음먹고 이번 겨울에 기후 좋고 따뜻한 코스타리카로 현지 가이드의 안내로 4가정이 부부동반하여 6박 7일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 연속해서 6일을 라운딩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들어 중간 중간에 관광을 곁들이고 골프는 4.5성의 좋은 골프장에서 3일간 3 라운딩만 하기로 하였다.

여행하기 전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과 기대를 하면서...

여행은 현지에 가서 새로운 자연환경과 문화문물 등을 접하고, 경험하고 관광하고, 환상적인 골프장에서 Play 하는 것도 기대되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여행을 더욱 유익하고 즐겁게 한다. 메트로 폴리탄 지역에 있는 우리 약대동문들은 20 여년 전부터 이사회를 주축으로 시작하여 선배님들의 노고 덕분에 많은 세계여행을 통하여 선배님들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가 사랑과 존경으로 협력해온 티이다. 그래서 이번 여행이 추억에 남는 즐거운 여행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모두가 감사한 일이다.

첫째날은 여행의 설렘으로 잠을 설친 채 꼭두새벽 4시반에 집을 출발하여 뉴왁공항에서 5시간 반의 비행 끝에 San Jose 공항에 대낮에 일찍 도착하였다. 오후에는 산호세 시내관광과 재래시장을 구

경할 수 있었는데, 시장을 통해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을 엿볼 수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열대과일 이외에는 미국에 못지않게 물건값이 비싼편이고 1970년대 한국의 수준을 연상케 하는 동대문 시장과 시내가 낯설지 않았다. 산호세에 있을 때는 현지 가이드 사모님이 음식솜씨가 좋아서 덕분에 점심과 저녁식사를 맛있는 한식으로 하니 속이 편안하고, 웨라톤 일류호텔에 묵으니 잠자리가 편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면서 즐겁게 관광할 수 있어 감사했다.

둘째날은 북부 관광지역 La Fortuna로 향하는데 중간에 Rafale 성당앞 Zarcero 공원내에 향나무로 코끼리 등 각종 동물형상을 만들어 정원을 가꾸어 놓았는데 일품이었다. 점심은 커피나무 장작으로 구운 통닭과 로칼맥주 Imperial을 곁들여 하였는데 커피냄새는 나지 않지만 수준급이었다. 식후에 냉동된 코코넛에 빨대를 꼽아 물을 마셨는데 이를 마시면 5년동안 암에 안걸린다고 한다. 물론, 상술이긴 하지만 맛은 좋았다.

La Fortuna에 도착하여 열대성 기후로 비가 수시로 내려 빗속에서 정글 밀림 Mistico 공원을 한시간 이상 산책을 하니 생전에 보지 못한 기괴기괴한 이름 모를 열대 식물과 새들을 동물들의 천국인 정글속을 지나면서 구경하였다. 여러 흔들다리 등으로 길을 만들어 놓아서 밀림속을 걸어서 볼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비도 오고 너무 흔들면서 걸어서 피곤한데다 야외 온천에서 피로도 풀지 못한 채, 내일은 이번 여행의 High Light 이므로 화창한 날씨를 꿈꾸면서 잠자리에 들었다.



셋째날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니 날씨가 개이고 호텔 전망이 너무 환상적이라 멀리는 Arenal volcano 화산이 보이고, 산세도 좋고, 열대 꽃으로 주위가 가득하니 Tropical Paradise가 아닌 가 싶다. 오전에는 Arenal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 악어도 구경하고 저녁에는 모두 Tabacon 알카리성 노천에서 흘러 떨어지는 따뜻한 물로 맛사지도 하고 피로를 풀고나니 기분이 상쾌하였다. 어제 가이드의 강력한 추천으로 스케줄에 없던 Zip Line을 여러 논쟁 끝에 8



명 전원이 타기로 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한 사람도 있지만, 80세에 가까운 젊은 나이의 여성들이 Zip Line을 탄다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8명 다 타기로 하였는데 막상 탈 때에는 열대성 기후로 갑자기 구름이 끼고 열대성 폭우가 와서 로프가 미끄러워 위험하기 짝이 없어서, 막 떠날려고 할 때는 완전무장한 상태에서 취소될 뻔하기도 했다. 여성분들 왈,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하나님께 안전기도를 하고 감행을 했다고 한다. Zip Line 아래로는 밀림지역 낭떨어지고, 길고 짧은 12 코스로 되어 있다. 속도조절이 어려워 출발과 도착지점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처음 3 코스를 지나고 나니 그 후는 산천을 즐기면서도 로프를 탈 수 있었다. 완주하고 나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고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편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안 되지? 80세 여성분들이 건강하여 Zip Line 을 완주 하였다는 것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사하며 또한 생애 활력과 자신감을 불러 넣는 것 같아 위험하였지만 잘 했다고 생각한다. 생각보다는 Zip Line이 세 줄로 연결되어 있고 가이드가 안내 잘 해주고 해서 안전한 것 같다.

로프를 타면서 이 줄을 놓치면 낭떨어지로 떨어져 죽는데 하고 생각을 하니, 나와 하나님과의 생명줄을 연상케 하였다.

찬송가에 “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 “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다.

4,5,6일째는 바제델술, 이구아나, 칸추리 클럽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는데 마지막 날 친 칸추리는 Fairway가 너무 좁고 그린이 포대 그린이라 성적내기가 무척 어려웠다. 4일째 친 골프코스는 쉬워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칠 수가 있어 좋았다.

모두 4.5 성 골프장이라 상태는 좋았지만 Merriot Resort Hotel에 있는 La Iguana Golf course는 테드 로빈슨이 디자인한 이국적인 자생식물과 새, 원숭이 등 야생동물을 포함한 조경을 갖춘, 해변을 따라 위치한 18홀 파72로 씨니어 티도 6200 야드의 도전적인 레이아웃으로 다시 한 번 와서 도전하고 싶은 골프장 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골퍼는 골퍼치는 것이 관광보다도 선호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즈음 건강상, 가정상 여러 이유로 부부골프 여행이 쉽지않은데 건강을 주셔서 함께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형편 주셔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6일 째는 오전에는 칸추리 클럽에서 골프를 치고, 강행군으로 오후에는 Lapaz Waterfall Gardens에서 새, 나비, 개구리, 원숭이, 재규어 등 자연생태 공원을 투어했다. 그러고서도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수백개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여행의 홀 코스를 완주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성분들이 Zip Line을 타고나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무모함과 자신감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같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세계 최초 스타박스 커피농장에서 진한 커피 한잔을 마시며 일주일 동안의 수박 곁핥기식 짧은 강행군이었지만 재미났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내년을 꿈꾸었다. 이제는 백세 인생이니 모두 모두 건강하여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함께 여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회원 명단 (108명 / 2024-2-25)

강교숙	김상만	성기로	윤재옥	임호순	한응오 한태진/ 한응희 허유선 홍정표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손갑수	윤종숙	정도현	
강영선	김영덕	손경택	윤현남	정수일	
계동휘	김영만	손대홍/ 남종현	이강홍	조달훈/ 조승자	
고애자	김우영	손옥화	이민제	정해민	
곽상준	김익성	송근수	이상무	조상근	
곽선섭	김정필	송웅길/ 송학린	이승준	주상선	
곽승용	김중욱	송현자	이준	주재양	
권문웅	김창수	송정	이대연	진봉일/ 천병수/ 천종화	
권정덕	김치갑	송혜순	이영범	최구진	
권영대	김태일	신진식	이용대	최병우	
권태전	김한중	신응남	이전구	최순채	
금영천	김현중	오순문	이종대	최준희	
김광수	노용면	오용호	이종석	최진영	
김광현	민준기	우규환	이준행	최한용	
김동건	박기환	유무영	이행순	최학주	
김문경	박상원	윤선구	이홍빈	한영수	
김문언	박희병	윤상영	임도혁		
김병순	배상규				

2024년 연회비 납부 명단 35명 / \$3,3500 / 2024-2-25)

강에드	신진식	진봉일
계동휘	오인석	최준희
고애자	윤상영	허유선
권문웅	윤선구	홍지복
권영대	윤종숙	홍선경
권정덕	윤재옥	홍종만
김광수	이강홍	홍예경
김동건	이상원	
김상만	이승준	
김중욱	이전구	
김창수	이종대	
민준기	이행순	
박희병	임호순	
신응남	정해민	

2024년 후원금 기부 명단 (10명 / \$5,800/2024-25)

강에드 200	이전구 1000
계동휘 300	이종대 200
권정덕 300	이행순 200
김중욱 200	임호순 300
김창수 200	정해민 1000
신진식 300	최준희 400
이강홍 200	홍종만 1000

2024년 입회비 납부 명단

발전기금 기부명단 (0명 / 2024-2-25)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화번호:

Email:

주소 (Home):

입회비 \$200

연회비 \$100

후원금 (\$))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4-2-25)

1월	24일 (수)	Zoom 경제 세미나 (14명 참석)
2월	22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3월	21일 (목)	Hiking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NJ
4월	12일(목)	Hiking
	25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Golf Club
5월	23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 Pelham Bay Golf Club
6월	13일(목)	Golf Outing
7월	18일(목)	Golf Outing
8월	15일 (목)	Golf Outing
	22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9월	12일(목)	Golf Outing
10월	14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7일(목)	Golf Outing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9일-14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2일(토)	2025년 신년교례회



3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김영덕 (공대53)
- 김치갑 (의대72)
- 이대영 (문리64)
- 이준행 (공대48)
- 임도혁 (공대59)
- 조상근 (법대69)
- 주재양 (공대51)
- 최준희 (의대58)
- 최진영 (문리55)
- 한태진 (의대58)
- 홍선경 (의대58)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